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3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3기

제9강
5월 16일(화)
오후 7시-9시

실크로드와 향신료 길: 호르무즈 해협과 인도양



강사: **이희수** 교수

튀르키예 이스탄불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탄불 마르마라 대학교 중세사학과에서 조교수로 강의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정년하고 현재는 성공회대 석좌교수 겸 계명대 특임교수로 있다. 2022년 제63회 한국출판문화상 대상 선정 저서인 <인류본사>를 비롯해 중동-오리엔트 역사와 이슬람문화에 관한 국내저서 98권, 외국어저서 12권, 번역서 12권을 출간했다.

.....

약 2천년전 오만 살랄라에서 출발한 유향은 로마시장에 도착해서는 약 2천배의 수익을 남겼다. 값비싼 유향은 사찰 등에서 훈향재로 쓰기 위해 신라에까지 수출되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자생하는 후추, 정향, 육계, 육두구, 커피, 차 등도 유럽인들의 소중한 기호식품이 되면서 폭발적인 플랜테이션 산업으로 성장했다. 향료의 길은 새로운 음식 문화혁명의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한 약탈과 탐욕의 제국주의 침탈의 길이기도 했다. 다양한 향신료들이 어떤 경로와 역사적 애환을 견디면서 바다길을 따라 우리의 식탁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아픔과 환희가 숨어있는지 살펴본다.